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MRI/CT/종합검진
부안드림병원
BUAN DREAM HOSPITAL
T.063)580-6705 F.063)581-3399
원장 채규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89

전민일보

예물 귀금속 전문
스위스 명품시계 공식매장
세광당 ☎289.3592(롯데백화점 지하1층)

제2959호 대표전화 (063)249-3000 jeonmin.co.kr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음력 12월 25일)

편견 딛고 세상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도내 정신질환자 유경력자 12만 3000여명 달하지만 사회적응 지원 대책은 미흡 관련 조례도 '제 역할' 못해

도내지역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정신질환 유경력자는 12만 3000여명이다.

도내 18세~64세 성인 인구가 121만 2000여명임을 감안하면 10.2%가 유병률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도내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별 전국평균 유병률은 알코올 중독 4.4%, 불안장애 6.8%, 우울증 등 기분장애 3.6%, 정신병적 장애 0.4%, 기타 정신장애 13.5%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민간기관에 맡겨진 가운데 병력자의 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다.

2014년 한해 도비의 지원을 받는 도내 21곳 복귀시설을 통해 입소인원 229명과 방문인원 392명 등 총 621명이 적응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정신질환 병력자 중 0.5%만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한 셈이다.

낮은 이용률은 사회복귀시설이 직업재활 위주로 활용돼 정신병력자의 사회재적응에 필수적인 꾸준한 케어와 치유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9선거구) 의원은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가진채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환자 개인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통합적인 계획 없이 예산보조 중심의 종전 지원관행을 맴돌며 정책 입안과 집행에 소극적이다.

전북도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립 지원시설 운영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계획에도 넣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심의할 지원위원회 구성에도 아직 세부적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복원기자

김제 벽골제 보축 제방에서 드러난 진흙주머니 초낭.

김제 벽골제에서 진흙벽돌 '초낭' 발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풀로 엮어 진흙을 담은 주머니인 '초낭'(草囊·진흙벽돌)의 원형이 김제 벽골제에서 국내 최초로 발굴돼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발굴조사를 진행중인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은 벽골제 제방의 동쪽부분 보축 제방의 성토층 하부에서 초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초낭은 김제 벽골제에서 사용된 부엽공법(敷葉工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카메이 유적(7~8세기)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 원형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남서-북동 방향으로 열을 맞춰 배치된 초낭은 연약한 지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7세기 전후의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 6년(790)에 전주 등 7개 주(州) 사람들에게 제방을 증·수축하도록 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도 일치했다.

또 초낭에서는 흙과 함께 볍씨, 복숭아씨가 출토된 가운데 하층에서는 담수(淡水) 지표종(指標種)인 마름(한해살이 물풀)이 발견, 김제 벽골제가 과거 담수지(淡水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축 제방의 규모는 길이 약 75m, 너비 약 34m이고, 성토층의 최대 잔존높이는 160㎝로, 남서-북동 방향으로 좁고 기다란 띠 모양(帶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제방의 기저부(基底部, 가장 아랫부분)를 조사한 결과, 제방은 직선으로 연결됐고, 일부 확인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면 제방의 너비는 약 30m 내외로 추정된다.

초낭을 발굴한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발굴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서남대 인수 최종 주인공은?

오늘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 따라 후폭풍 예고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13일 최종 선정된다.

그러나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13일 오후 대전시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재정지원 기여를 위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자 후보로는 전주예수병원과 명지병원으로 압축됐다.

당초 서남대 재정 기여자 공모에는 전주예수병원과 명지병원·중원대·부영건설 등 총 4개 법인이 관심을 보인 가운데 서남대 이사회측이 재정적인 문제와 의평원 평가 부족 등의 이유로 2배수로 압축해 전주예수병원과 명지병원 두곳에 지난 10일까지 추가 보완자료 및 재단전입금 35억원을 내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두 병원은 기한에 맞춰 전입금을 예치하고 보완서를 제출했다. 전주예수병원의 경우 자료제출 만료시한인 지난 10일 부영그룹과 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입금 55억원을 예치하는 한편 의대 인증을 위한 세부계획과 대학 시설 및 교수 확충 방안 등을 담은 보완서류를 냈다.

특히 전주 예수병원의 이같은 컨소시엄 구성 양해각서는 우선협상자 선정에 참여한 다른 기관보다 유리한 선점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병원은 의대 정상화, 부영그룹은 재정과 학교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명지병원은 지난 10일 서남대가 요구한 전입금 35억원을 학교측이 요구한 가상계좌에 예치하고 제천병원의 서남대 부속병원화,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의 기부채납 계획 등이 포함된 재정 안정 방안을 제출한데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예수병원을 '제2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명지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대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한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으로 학교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 병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우선협상자에 선정되면 서남대 인수재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복진기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설 명절을 1주일 앞둔 12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가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지사와 김광수 도의장 등 참가자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박형민기자

KTX 익산역 환승센터 '과부화' 논란

도, 시외버스 100여대 경유 추진 … 일각선 "교통 혼잡"우려

전북도가 익산 KTX역에 100여대의 시외버스 경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 혼잡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 호남고속철 개통 관련 '연계교통망 구축'의 한 방안으로 익산역 간이환승센터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현재 21회에서 124회로 증편한다.

'익산역 연계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혁신도시-익산역-군산 노선이 4회(오전·오후 각 2회)에서 향후 10회로 증회 된다. 전주-익산역-익산터미널-군산역 경유 노선도 현재 17회에서 25회(8회 증)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김제, 부안에서 익산터미널로 오간 각각 28회와 41회의 시외버스가 모두 익산역에서 승·하차 하게 된다. 기존 전주-익산터미널-군산을 오갔던 하루 50차례의 버스도 20차례 이상 익산역을 먼저 거쳐 갈 예정이다. 간이환승센터에 사실상 군 단위 공용터미널 수준의 버스가 오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익산역사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혼잡,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발, 기존 터미널 이용 혼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익산역 앞은 현재도 중앙동, 터미널, 송학동 이용객 수요로 교통이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까지 새로 설치되면서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의 권한은 전적으로 도에 있다"면서도 "익산역에 하루 100대 이상의 시외버스 경유 수요에 대해선 의문이다"고 밝혔다. 전북발전연구원의 KTX 주요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달 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김병진기자

2013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정읍단풍미인쇼핑몰
명절 선물은 정읍 단풍미인 쇼핑몰 에서 준비하세요!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2015년 단풍미인쇼핑몰 '설명절 상품관' 운영
-운영기간:2015.1.9.~2.13.-
◈ 설 기획상품
• 20 ~ 30% 할인 : 24개 업체 100여 품목
• 대량주문 할인(10+1) : 9개 업체 35개 품목
• 설 제수용품 꾸러미 상품 : 1종 10개 업체 (한우, 한과, 과일, 나물 등)
◈ 우수 구매고객 추첨 경품 증정
• 최우수 (10명) : 5만원 상당 농산물 꾸러미
• 우 수 (20명) : 3만원 상당 농산물 꾸러미
※ 회원가입 구매 시 2% 적립금 혜택
※ 전 상품 100% 무료택배 서비스
고객만족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
단풍미인 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네이버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 (☎ 063.539-5293)